

학동2 등 4곳 재개발·재건축 직권해제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재조정 추진 늦어지고 갈등 지역 대상 광산구 등·서작 재개발 구역 공공시행자 지정 정비사업 추진

광주시가 동구 학동2 재개발구역 등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정 직권해제한다. 광주시는 26일 "도시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일부를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정은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했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주민갈등이 내재된 일부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등을 추진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담보 상태인 24개 구역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5회에 걸쳐 자치구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비예정구역 4곳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 1곳을 선정했다. 직권해제 대상지는 동구 학동2 재개발 구역 1곳과 남구 봉선라인모아·봉선명지맨션·진월신흥타운 재건축 3곳 등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광산구 동·서작 재개발구역 1곳에서 추진한다. 동구 학동2구역은 학동남광주역 일대(3만4225㎡)로 2004년 3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조합설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재래시장 현대

화 사업(국비약26억원 투입) 등 국비사업 추진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남구 봉선라인모아(87년 준공·1433세대)·봉선명지맨션(88년 준공·419세대)·진월신흥타운(87년 준공·363세대) 등 재건축 3곳은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자치구, LH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3회 진행해 광산구 동·서작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으며, 27일 우산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의 직권해제 추진에 따라 앞으로 대상 정비예정구역 자치구의 30일 이상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내 지방

의회 의견 수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이르면 6월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동의절차를 거쳐 광주시, 자치구, LH 등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직권해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원회 운영·집행 등으로 인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시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각 지역민의 역사·특수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김덕령 의병장 기리는 장학금 수여

조선중기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애국 충절을 기리며 후학을 길러내는 장학사업이 추진됐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2일 구청 3층 상 황실에서 (사)충장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사)충장장학회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애국 충절의 뜻을 기려 지난해 9월 장군의 11대손인 김백규 이사장 주도로 설립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김 이사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대학생 39명에게 총

7800만원(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김 이사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충장공의 고귀한 뜻과 애국심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동구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덕령 장군은 반란군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무고로 옥사했고, 이후 신원이 회복돼 병조판서에 추증됐다. 동구에는 그의 시호를 딴 충장로가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산구보건소 해빙기 조기방역 시작 세계수영선수권 대비 8월까지 지속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감염병 예방 차단과 집단발생 위험 저감 등을 위해 이달부터 해빙기 조기방역을 실시하고, 대회 전까지 방역을 집중 강화한다. 이번 방역은 선수촌과 미디어촌·남부대경기장 등 수영대회 관련시설 주변을 집중 방역하는 것을 시작(사진)으로 숙박업소·식당·철도역사·공원장 등 의무소독대상 시설 935개소에 안내문을 보내 8월까지 방역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광산구보건소는 이번 집중방역을 위해 지난달 방역소독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어 6개 방역소독업체를 선정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에따라 업체와 계약을 마무리하는 대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광산구는 하수구, 쓰레기 방치장소, 개천 등 모기 유충·성충의 서식지와 민원인 제보구역에 친환경 방역약품을 사용, 효과가 뛰어난 초미립자살포(ULV)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옥형 광산구보건소장은 "5월부터는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지역민에 교육장 무료 개방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윤진보)는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산구 옥동차량기지 내에 위치한 인제개발원 교육장을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공사 인제개발원 교육장은 113㎡의 면적에 총 60 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주차장, 빔 프로젝터, 무선 인터넷, 음향 장비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개방하며, 사전협의를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도 공사는 각 지하철 역사를 시민 문화공간으로 개방, 각종 공연과 전시의 장이자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16억원 투입 생활체육시설 확충 추진

일곡인조잔디구장 개보수 첨단체육공원에 체육관 건립 게이트볼장 7곳 시설 정비 광주시 북구가 예산 16억여원을 투입, 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문인 북구청장은 이날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을 방문해 북구 축구협회·조기축구회·주민 등을 만나 일곡인조잔디구장 개보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북구의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14년 7억원을 들여 조성한 인조잔디구장은 그동안 바닥이 딱딱하고 미끄러움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9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선정으로 지원 받은 예산 10억 원을 투입해 올해 9월까지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첨단2산업 체육공원에 북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게이트볼장 7곳과 족구장 1곳은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산강변에도 운동장을 조성

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단계적인 시설정비와 학교 체육시설 개편 등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주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4년 야구장 3면,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의 영산강변 북구 종합운동장과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의 각화1교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에는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유지해 추진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집적단지' 정책제안서 모집

광주시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정책 제안서는 오는 4월1일부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전략산업국 스마트시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 협동연구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061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향후 광주시가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중심 글로벌 메카로 성

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는 AI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광주의 열약한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복합목적의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주 첨단3지구 내 연구소·대학·혁신센터·기업이 참여해 R&D·창업기반 및 실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산업융합 R&D ▲AI 창업 보육 지원 기능 집적화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이다. 또 광주시는 인공지능사업이 광주형 광역시가 첨단3지구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061억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향후 광주시가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중심 글로벌 메카로 성

市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 재활병원 개소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광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센터는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서구 유촌동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예정 부지 내 연면적 372㎡에 마련됐다. 동물병원 시설과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상이나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치료 후 재활해 자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멸종위기종 등 생물다양성 보존사업

과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시민 참여형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는 관내 동물병원 5곳에서 위탁 운영해왔다. 이처럼 전담 센터가 없다면 심한 상처를 입은 동물의 치료나 전문 재활, 방사활동은 사실상 어려웠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조영관 원장은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인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평당 2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